

플래시백

〈1985년 11월 4일〉

한국 대중음악의 중요한 장르였지만 기성세대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고 있다. KBS 1TV '가요무대'는 오랜 세월 트로트의 전통을 지켜왔다. 1985년 오늘, 첫 방송 뒤 현재까지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수많은 트로트 가수가 무대에 나섰고, 초창기 진행자 김동건 아나운서가 현재도 진행 중이다. 4일로 1637회 방송을 맞는다.

“빨래판 복근·거꾸로 매달린 채 바둑…CG? 접니다 저!”

영화 ‘신의 한 수:귀수편’ 권상우

촬영 3개월전부터 8kg 감량하며 관리 근육질 만들기? 자존감 채우는 과정 복수를 위해 인생 모두 건 ‘귀수’ 이해 40대중반에 액션영화? 3부작 커밍 슨!

“오! 권상우? 아직 날라 다니네! 10년쯤 뒤에도, 아니 60살에도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꾸준히 연마하고 나태해지지 않아야죠. 오래~, 길게~ 연기하고 싶어요.”

일찍이 한류 드라마 붐을 주도하고, 일본과 중국에서도 스타로 군림해온 배우 권상우(43)는 “오래오래 연기하고 싶다”고 했다. 데뷔하자마자 곧장 스타덤에 올라 인기를 구가한 배우들이 보통 이런저런 고민과 작품 선택의 어려움 앞에 주춤할 때 권상우는 다시 속도를 냈다. 변화의 출발은 2015년 주연한 영화 ‘탐정:더 비기닝’. 2018년 후속편까지 성공으로 이끌면서 다시 한번 존재를 확인시킨 권상우가 “배우 인생에 티닝 포인트가 될 작품”이라고 자신하는 영화를 7일 개봉한다. ‘신의 한 수:귀수편’(감독 리건·제작 아지트 필름)이다.

개봉을 일주일 앞둔 10월30일 서울 삼성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권상우는 “‘탐정’ 시리즈로 슬럼프를 극복했다면 ‘귀수편’은 제가 오랫동안 꿈꿔온 도전”이라며 “배우로서 적지 않은 나이에 소화한 이번 작품을 계기로 좀 더 다양한 장르에서 쓰이는 연기가 되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액션 장면 CG라는 말에 섭섭”

권상우는 매일 오전 거르지 않고 한 시간씩 운동을 한다. 20대 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 강도 높은 트레이닝도 병행한다. 오랜 습관이지만 꼭 ‘근육질’ 몸을 만들기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했다. “꿈을 위해서 합니다. 사실 평소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도 어려워요. 운동하는 한 시간 동안은 저만의 시간이죠. 소중한데요. 남들은 ‘몸 만드는 게 뭐가 그리 대단해’라고 말하지만 저한테는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존감을 채우고, 연기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거든요.”

권상우는 자신과 약속을 거르지 않고 살아온 덕분에 ‘신의 한 수:귀수편’도 만났다고 내심 믿는다. 영화는 소년 귀수가 바둑으로 모든 것을 잃은 뒤 가까스로 살아남아 복수를 꿈꾸는 이야기다.

비통하게 잃은 누나와 안타깝게 떠난 스승의 복수를 위해 연마를 거듭한 귀수가 소년에서 청년으로 성장한 장면에 처음 등장하는 권상우는 보는 이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다. 상반신 근육을 드러낸 채 거꾸로 매달려 ‘빨래판 복근’을 보이면서 바둑을 두는 장면이다. 촬영 3개월 전부터 준비해 8kg을 감량한 그는 촬영을 앞두고 이틀간 물도 한 모금 넘기지 않았다고 했다.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을 두고 ‘컴퓨터 그래픽 아닌가’ ‘와이어의 도움을 받았다’는 등 반응이 나오자, 그는 “정말 섭섭하다”면서 웃었다.

“상상도 못할 외로운 과정이었어요. 지방 촬영 때 동네 헬스클럽 찾아다니면서 1만원씩 내고 매일 운동했어요. 개봉할 날만 기다리면서 근육적인 생활을 했다고 할까.(웃음) 고통이었죠. 즐거운 고통.”

영화는 성장한 귀수가 자신을 둘러싼 인물들을 한 명씩 만나 ‘도장깨기’ 하듯 바둑대결을 벌이면서 복수를 이뤄간다. 복수의 키워드는 ‘신의 한 수’ 시리즈의 핵심이다. 정우성 주연의 1편 역시 바둑과 액션을 접목한 복수극으로 흥행했다. 2편 역시 비슷한 길 위에서 바둑의 세계를 더 파고든다. 만화적인 상상력, 잘 짜인 액션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어우러져 1편의 완성도를 뛰어넘는다.

권상우는 “복수를 위해 인생의 전부를 건다는 말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어릴 때 기억을 떠올려 봐도, 내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복수의 길을 가는 건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상우의 액션 3부작 준비”

권상우는 이번 영화에서 만난 김희원, 허성태, 김성균, 우도환 등과도 꽤 가까운 사이가 됐다. “평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호감을 가진 배우들”이었고, 금방 친해졌다.

“아! 이렇게 연기 잘 하는 배우들이 있구나, 놀라고 부러웠어요. 막내 우도환이요? 20대만 가능한 ‘브이라인 얼굴’을 가졌더군요. 하하! 예의도 있어요. 제가 만약 여자라면…, 강동원보다 우도환! 그런 농담도 했어요.”

누구보다 인기 절정의 20대를 보낸 권상우도 간혹 그때를 떠올릴까. “돌아보지 않는 편”이라고 했지만, 이내 말을 이었다.

“예전에 교복입는 캐릭터를 많이 해서 인터뷰에서 ‘교복 그만 입고 싶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교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역할이 무궁무진해요. 다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죠. 40대 중반인 지금은, (연기하기)가장 어정쩡한 나이 같아요. 드라마도 하고 싶지만 저를 충족시키는 이야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는 요즘 “좋은 영화를 많이 하고 싶다”는 목표도 다지고 있다. “상업영화로 관객에 주는 재미”, “그 안에서 보이는 배우의 활약”, “손익분기점을 넘기는 영화”가 그 기준이다.

향후 계획도 밝혔다. 권상우는 갑자기 ‘기생충’ 속 송강호 대사를 패러디하면서 “저도 다~ 계획이 있습니다”고 운을 뗐다. 내년에 영화 ‘히트맨’을 내놓은 뒤 웹툰 원작의 또 다른 액션영화에도 출연한다. 스스로 “권상우의 액션 3부작”이라며 기대를 내비쳤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



영화 ‘신의 한 수:귀수편’의 주연으로 나선 권상우는 “오랫동안 꿈꿔온 도전”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장르에 쓰이는 연기가 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CJ엔터테인먼트

기획 점검 | 영화 ‘82년생 김지영’으로 짚어본 평점테러(상)

현실 이슈팬 무차별 ‘1점 테러’…순수창작물 영화가 위험하다

적지 않은 영화에 대한 ‘평점 테러’의 피해가 심각하다. 영화 개봉 전, 이를 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혐오와 공격을 더해 10점 만점에 1점을 부과하며 일부러 점수를 낮추는 행위다. 포털사이트 영화 게시판이 공격의 주요 무대다. 최근작 ‘82년생 김지영’ 역시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평점 테러’가 최근 더욱 광범위하게 자행되면서 영화계 안팎에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절실하다. 3회에 걸쳐 평점 테러의 폐해를 짚고, 그 대안을 모색한다.

‘부러진 화살’ ‘변호인’ 대표적 사례 표현의 자유 ‘평점’, 혐오 수단 변질 대응책 없어 왜곡된 시선 확산 우려



2012년 ‘부러진 화살’

온라인 영화 평점은 영화에 대한 감상평과 만족도를 점수로 매기는 것이지만, 어느새 표현의 창구 기능을 잃고 공격과 혐오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의제를 담거나 현실 이슈와 맞닿은 영화들이 주 공격 대상이다. 하지만 그 정도가 도를 넘어선다는 지적이 많다. 10월23일 개봉해 2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른 ‘82년생 김지영’에 가해지는 음담풍격에 가까운 공격에서 그 민낯이 날낯이 확인된다.

●송강호의 ‘변호인’…평점 테러 음담풍격

‘평점 테러’라는 말이 본격 등장한 것은



2013년 ‘변호인’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부터다. 해고 당한 대학교수가 사법권력에 맞선 실화를 다룬 영화가 개봉하자 포털사이트 영화 게시판에서 ‘의문의 1점 평점’이 속출했다. 사법부에 대한 정면 비판, ‘남부군’ 등 영화로 현실에 대한 날선 시선을 견지해온 정지영 감독의 연출작 이단 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가족의 이야기인 ‘26년’, 1980년대 공권력의 고문과 가혹 행위를 비판한 정지영 감독의 또 다른 영화 ‘남영동 1985’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개봉 이후, 그것도 비교적 소극적인 형태에 그쳤다.



2019년 ‘82년생 김지영’

그야말로 ‘맹공’ 수준으로 본격화한 건 2013년 12월 개봉한 송강호 주연 ‘변호인’이다. 개봉을 앞둔 11월 초부터 본격 시작된 주된 공격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라는 데 집중됐다. 일회감지 관심을 차단하려는 움직임 속에 혐오와 막말이 쏟아졌다. 연출자인 양우석 감독은 당시 “여러 의견이 공존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성숙해 대중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평점 테러는) 일종의 해프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실제 ‘변호인’은 영화 자체의 힘으로 1137만 여 관객을 동원했다.

‘변호인’과 ‘82년생 김지영’의 홍보마케팅

사인 퍼스트룩 강효미 대표는 “순수 창작물이 아닌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첨예한 화두나 인물을 다루는 영화일수록 평점을 통한 지지층과 반대층이 대립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짚었다.

●“왜곡된 시선 확산 우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피해의 양상은 더욱 심각하다. 강 대표는 “작품이 어떤 주제를 다뤘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개봉 전부터 이뤄지는 비방성 공격은 어떤 식으로든 영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특정 프레임을 영화에 덧씌워 이슈를 생산하는 행위도 종종 목격된다. 일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인 ‘군함도’는 밀도 끝도 없는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려 ‘평점 테러’를 당했고, ‘인랑’은 난민 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한 정우성이 주연한다는 이유로 공격받았다. CJ엔터테인먼트 오지는 과장은 “평점을 통한 공격은 영화의 본질이 채 전달되기도 전, 대중 사이에 선입견이나 왜곡된 시선을 확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해리 기자 goli1024@donga.com